

지역 소식통

정읍시, FTA 피해 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22일까지 신청

정읍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에 앞서 오는 22일까지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의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산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농업인·생산자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이 들어온 품목의 수입량, 수입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후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다.

고창군,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 31일까지 신청

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확충과 영농 안정화를 위해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산업에 종사자이며, 비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월곡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본격

고창군, 편백나무 심터·향기수목 심터 조성 등

고창군의 대표적 도심공원인 '월곡근린공원'이 새로운 꽃과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월곡근린공원'이 2022년 도시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인 총사업인 10억원을 투자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회와 경관 심의회 과정을 거쳐, 더 발전하고 친근감 있는 공원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쪽부분에 수목생육활성화를 위해 토양치환과 원활한 배수개선을 위해 원형수로관 및 자갈 맨암거(땅 속에 자갈·잡석 등을 묻은 수로)를 설치했다.

중앙광장에는 달조형물과 쉼터테크를 설치하고 화목류와 계수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 잦은 송진 피해 민원과 태풍에 쓰러질 수 있는 일부 나무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편백나

무 심터와 향기수목 심터를 만든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많이 방출하는 나무로 살균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혈중농도를 절반 이상 줄여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증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책로와 맨발걷기 황톥길을 조성하고, 평상과 의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9일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마갈레스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필리핀 마갈레스·나익시, 계절근로자 교류 업무협약 체결 마갈레스시, 근로자 선발 훈련 지원 등 이태방정책 확보 교육 등

정읍시는 9일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마갈레스시(시장 자스민 안젤리)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자스민 안젤리 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거주·근무여건을 제공하고, 마갈레스시는 근로자 선발과 훈련을 지원하는 등 이태방정책 확보와 교육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 조사와 유치 시기 등을 파악해 마갈레스시와 나익시에 인력 파견을 요청해 3~4월 중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필리핀 현지 사전교육과 농가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 및 점검으로 무단이탈 방지는 물론 인권 보호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수한 계절근로자 유치를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농업 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준열 전북도농업기술원장, 부안군 영농현장 방문

직원 격려·애로사항 청취

최준열 전북도 농업기술원장이 지난 8일 전북 농업, 농촌의 발전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부안지역 영농현장을 방문했다

최 원장은 부안 농업 현황과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으며 농촌지도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 격려하고, 부안군 동진면 소재 벗넛포레도 농촌치유농장과 귀농귀촌인 염소농장을 방문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레도에서는 치유농업 운영 현황 청취, 운영에 대한 전망과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레도는 2017년 이후 지난해 교육농장 품질인증 재획득한 교육농장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정원사'를 주 테마로 포레도케어프로그램, 힐링원예가드닝체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농촌치유 농장의 표본으로 자리



최준열 전북도 농업기술원장이 지난 8일 전북 농업, 농촌의 발전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부안지역 영농현장을 방문했다.

매김하고 싶은 포부를 밝혔다. 최준열 원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도 각각의 분야에서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감사를 드린

다"며 "전북농업기술원과 부안군농업기술센터가 기술협력과 현장 소통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1단계 공공근로사업 본격 추진

17일까지 신청접수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4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개월씩 총 3단계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13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총 195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은 1단계 사업으로, 2월13일부

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청년 일자리 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 52개 사업에 총 9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 능력이자 해당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이면서(2023년 기준 4인 가구 401만 939원)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다

른 직접 일자리 사업과 참여 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65세 미만은 1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1주 15시간 이내이다.

고창군청 황민안 생활력경제정책관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추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재해 위험수목 사전제거작업단 모집

15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각종 등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위험수목 사전제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작업을 수행할 재해위험수목 제거작업단 6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정읍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70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 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거나 재해위험수목제거 작업 및 산림법률 2년 이상 참여 경력자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시청 산림복지과에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 실기시험 등을 거쳐 오는 2월 8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루 16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시는 재해위험수목 제거작업단 모집을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재해위험수목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주택이나 모정에 연결된 나무가 강풍 등 재해로 넘어져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수목이다.

수목 제거 신청은 3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하면 된다. 단, 마을 경관수 가지치기와 농경지 피해목 제거, 개인 조경수 제거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림복지과 관계자는 "주택지 등 생활터에 자리한 위험수목을 크레인과 기계톱 등의 장비로 사전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Energy saving campaign graphic with text: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and a list of 4 energy-saving tips.